

열정 넘어 조직·인력 뒷받침 지속가능성을

제주아트센터와 공동 주최 메인 공연과 하우스콘서트 작년 실내악콩쿠르 수상팀 최정상 연주자의 앙상블 등 겨울 음악축제 가능성 열어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메인 공연 셋째 날인 지난 22일 김다미·김덕우·김상진·이강호·김태형이 수크의 '피아노 5중주'를 연주하고 있다. 사진=제주아트센터

“수크, 도흐나니는 작품번호 8번, 10번 이렇습니다. 한 자리 숫자는 그 사람의 초기 작품이라는 것이죠. (중략) 재능있는 작곡가들의 젊은 시절이 어땠는가를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재직하며 해설 음악회를 이끌었던 김용배 피아니스트의 음성으로 막이 열렸다. 연주 전 그가 노련하고 맛깔나게 풀어낸 곡목 해설은 어느덧 청중들을 동유럽의 어느 도시로 이끌었다. 지난 22일 저녁 제주아트센터. 이곳에서 4일 동안(1월 20~23일) 대히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진행된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이하 JICMF) 메인 공연은 이 행사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수준 높은 실내악 연주를 객석의 눈높이에 맞춰 대중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점이다. JICMF는 2018년 제주건반예술

학회가 주최한 아라인터내셔널뮤직페스티벌에서 시작됐고 2020년 제주아트센터와 공동 주최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JICMF를 기획해 조직위원장, 예술감독 등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희정 제주대 음악학과 교수의 노력이 빛을 발하며 지난해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제 우수 사업에 뽑혔다. 5회째인 올해 다시 제주아트센터와 손을 잡은 페스티벌은 지난 연말 4회 행사에 이어 숨 가쁘게 준비됐지만 ‘겨울 여정’을 주제로 곳곳에 인상적 무대를 만들었다. 총 18곡이 펼쳐진 메인 공연에선 지난해 치른 첫 제주국제실내악콩쿠르 전체 대상인 ‘르포르트 트리오’와 아티스트 부문 2위 수상팀인 ‘앙상블

아투지’ 등 국내 유망 연주자들을 소개했고, 김다미·김덕우·김상진·이강호·김태형 등 최정상의 연주자들이 호흡을 맞춰 수크의 ‘피아노 5중주’를 연주하는 장면을 빚어냈다. JICMF 상주단체 격인 ‘앙상블 데어 토니카’,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단원, 제주대 음악학과 재학생 등 제주 연주자들도 ‘배경’이 아닌 ‘주체’로 무대에 올랐다. 콘트라베이스 앙상블을 포함 성악, 관악 등 실내악의 영역을 확장하는 무대도 늘었다. 메인 공연 앞뒤로 배치한 도내 문화공간 활용 하우스콘서트에는 제주 청년 예술가, 음악 영재 등을 초청해 제주 실내악의 미래를 제시했다. 이달 27일 월정 예비회에서 개최되는 하우스 콘서트로 막을 내리는

이번 JICMF는 향후 ‘겨울 음악축제’로 정체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실내악콩쿠르를 개최해 입상자들은 다음 해 JICMF에 초청한다. 가을엔 관객 맞춤형 공연인 ‘스페셜 콘서트’도 구상 중이다. 하지만 JICMF가 지속되려면 개인의 열정을 넘어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만 해도 JICMF 공식 홈페이지가 거의 가동되지 않았고, 막바지엔 프로그램북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동영상 중계는 특정 날짜에만 이뤄졌다. 올해 처음 시도한 제주아트센터의 유료 관객 인원은 총 522명. 이들이 씨앗이 되어 JICMF를 어떻게 키워갈지 지켜볼 일이다. 심희정 조직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주자들이 ‘제주’에서 열리는 실내악축제라는 이유로 선뜻 참여해주고 있다”며 “관악제와는 또 다른 빛깔로 음악과 예술을 접목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행사가 되도록 이끌고 싶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매년 창작곡을 위촉해왔는데 실내악을 통해 제주의 숨은 멜로디를 찾아내 관객들과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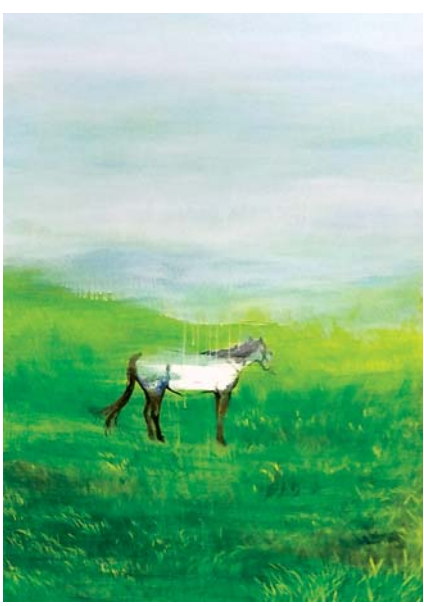
황학주의 제주살이 (20)

그럼 제주에서 뭘 먹어?

육지에서 손님이 오면 회 아니면 흑돼지를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오해가 있다. 그들은 제주에 사는 내가 늘 회나 흑돼지를 먹고 사는 줄 안다. 나는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며, 대신 소라나 해삼, 멍게를 먹는다. 흑돼지는 흑돼지 살코기보다 껍데기를 먹고 싶어 껍데기를 서비스로 주는 흑돼지 집에 가거나, 흑돼지 뒷다리로 만든 하몽을 술안주로 먹는다. 동영상 중계는 특정 날짜에만 이뤄졌다. 올해 처음 시도한 제주아트센터의 유료 관객 인원은 총 522명. 이들이 씨앗이 되어 JICMF를 어떻게 키워갈지 지켜볼 일이다. 심희정 조직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주자들이 ‘제주’에서 열리는 실내악축제라는 이유로 선뜻 참여해주고 있다”며 “관악제와는 또 다른 빛깔로 음악과 예술을 접목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행사가 되도록 이끌고 싶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매년 창작곡을 위촉해왔는데 실내악을 통해 제주의 숨은 멜로디를 찾아내 관객들과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음식으로 승부를 본다는 태도인데, 그런 접에선 나와 닮아 있다. 가령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뿌리, 잎, 줄기, 열매까지 통째로 들어가는 비빔밥을 만들거나 양념이 덜 들어가는 맑은국, 아내의 요리 스타일이다. 원래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동물과 유사하대, 라고 아내는 말한다. 이하 동문이다. 저녁은 드디어 내가 주도권을 잡는 시간이다. 나는 전통 음식의 맛과 향에 익숙한 세대이기엔 나물이나 탕, 국물 있는 요리를 선호한다. 햇고사리와 대파를 이용한 육개장, 토란탕, 산나물밥, 얼큰한 한우 설밥 등이 나의 주특기이다. 저녁 외식 코스는 잘 좋은 육회를 먹을 수 있는 대흘리 식당, 함덕에 있는 보말미역국 집, 봉개동 기사식당 등이 있고, 막걸리에 생무와 김치만을 주는 마을 뒷골목 할망 가게가 있다. 이래저래 우리는 향노화 에너지를 분출하는 제주 바다와 한라산에서 취한 식재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나이 들고 몸이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속도는 사랑이라는 풀이고, 연인이란 음식을 서로 나누는 사이라고 했다. 사람은 잘 먹어야 산다. 암환자들이 사실상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 건강하려면 의사보다 요리사를 찾으라는 말을 되새긴다. <시인>

우도창작스튜디오에서 보낸 2년



입주 작가 3인 공연·전시 “선물처럼 다가온 섬 담아” 제주 동쪽 끝에 있는 섬, 우도. 광민아, 자우녕, 전기숙 등 세 명의 예술가가 그 섬에 있는 ‘우도창작스튜디오’ (제주시 우도면 영일진사길 15-5)에서 보낸 2년을 방문객들과 나눈다. 이번 행사는 ‘공기는 사이에 흐른다’는 제목 아래 우도창작스

튜디오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3인의 입주 작가는 선물처럼 다가온 우도에서의 시간을 공연, 전시 등 각기 다른 작품으로 풀어냈다. 자우녕 작가는 설치, 미디어 등으로 연결과 해체, 멈춤과 확장을 반복하는 작업의 여정을 보여준다. 전기숙 작가는 ‘야행성 풍경’, ‘너의 바람’ 시리즈 등 우도의 바람을 흉내 낸 거칠고 빠른 붓질이 있는 회화 작업에 섬의 모습을 담았다. 전시는 이달 25일

부터 28일까지. 앞서 광민아 작가는 ‘빛으로 그리는 우도’를 제작해 지난 21~23일 매일 한 차례 공연했다. 우도창작스튜디오는 우도면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시설로 2013년 2월 개관했다. 연면적 345.6㎡ 지상 2층 규모로 창작실 4실, 갤러리 등을 갖췄다. 입주 기간은 1년으로 별도 심사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우도면은 최근 미술, 문학 분야 등을 대상으로 차기 입주 작가 모집을 마쳤고 2월 중 선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제주시 ‘올해의 책’ 공모

팬데믹 시대에 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2022 제주시 올해의 책’ 시민 추천 도서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부문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제주문학 등 4개다. 부문별 1인

3권 이내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추천하면 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발간된 도서로 국내 생존 작가의 출판물에 한한다. ‘올해의 책’은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 ‘2022 책 읽는 제주시’ 선포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추천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우당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영당이 시린 겨울~

제주 시민만을 위한 노비타비데로 겨울나기

2022. 01. 18 ~ 02. 28

코로나 상생지원금 탐나는 전 사용가능

주소 : 제주시 연삼로 17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01

7만원 할인

BD-AFE50N

#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

~~299,000원~~ **229,000원**

02

7만원 할인

BD-CD51N

#방수등급 IPX5 #자동노즐세척 #원적외선 건조

~~309,000원~~ **239,000원**

03

4만원 할인

BD-H700HO

#매일자동살균! #손 대기 삶은 도기까지 살균! #방수등급 IPX7 #원적외선 건조 #3WAY, 3D노즐 #3분 케어

~~399,000원~~ **359,000원**

특별 할인혜택 | 1년치 필터(2개) | 무료 설치 | 예코백 증정 | 닥터클린 10%할인

닥터클린 서비스 할인 접수 방법

노비타 홈페이지(www.novita.co.kr) > 제품 등록 > 쿠폰 발급

※ 홈페이지에서만 혜택 적용 가능 (유선, 방문 신청 시 적용 불가)